

메시지 3

신성한 행정의 보좌 앞에서 불타는
일곱 등불이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체험함으로,
금등대들을 일으키는 일에서 하나님의 최종 움직임을 수행함

성경: 계 1:4-5, 12, 4:1-2, 5, 11, 5:6

I.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삼일성의 행정, 통치, 활동, 동작, 움직임, 행동, 일 등을 보며 거기에서 강조점이 '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'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
- A.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삼일성은 경륜적인 삼일성, 곧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삼일성이다.
- B.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삼일성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지만,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삼일성은 복잡하시다—마 28:19, 계 1:4-5.
- C.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 그 영은 하나이시지만, 기능과 일에 있어서 그 영은 일곱이시다—계 3:1, 4:5, 5:6.
 - 1. 숫자 칠(7)은 강화를 상징한다—단 3:19, 사 30:26.
 - 2.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 땅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, 곧 일곱 배로 강화된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—대하 16:9, 슥 4:10.
 - 3. 하나님의 최종 움직임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강화되는 것에 달려 있다.
 - a. 오늘날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심으로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—롬 5:10, 고전 15:45하, 고후 3:6.
 - b. 생명 주시는 영의 모든 요소들은 일곱 배로 강화되었다—롬 8:2, 히 10:29.

II. 요한계시록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성한 행정을 위한 하나님의 보좌를 밝혀 준다—계 4:1-2, 5:1, 6:16, 7:9, 8:3, 21:5.

- A. 우주에서 하나님은 행정의 중심을 갖고 계시며, 그 중심은 바로 그분의 보좌이다.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분의 보좌는 권위의 보좌이다.
- B.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며 그분의 영원한 정책을 집행하신다.
- C.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장면 뒤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—사 6:1, 왕상 22:19.
 - 1.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계정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다. 세계정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보좌에서 결정된다.
 - 2. 세상의 모든 왕들과 왕국들은 하나님의 행정의 다스림 아래 있다—단 4:26, 32하, 7:9-12, 2:34-35.
- D.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영적인 이상을 보아야 한다—계 4:2, 5:1, 겔 1:26.
- E.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보좌가 그 위에 있는 청명한 하늘을 얻는 것이다—겔 1:26-28.
 - 1. 교회 안에 있는 유일한 권위는 청명한 하늘 위에 있는 보좌이다—마 28:18-19, 20:20-28.
 - 2. 우리가 보좌가 그 위에 있는 청명한 하늘 아래 있다면, 참된 권위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—고후 10:8, 13:10.

3.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얼마나 순복했는가에 달려 있다.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무게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.
 4. 우리가 청명한 하늘을 갖는다면 보좌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.
 - a.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좌를 얻으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서 다스리실 위치를 얻으시는 것을 의미한다.
 - b. 우리가 청명한 하늘 위의 보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가장 높고 탁월한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다.
 - c.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청명한 하늘 위의 보좌를 갖는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F.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—엡 1:9, 11, 3:11, 롬 8:28, 계 4:11.
1.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주를 다스리신다—딤후 1:9.
 2.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의 큰 기쁨에 따른 뜻을 갖고 계시며, 그분의 목적이 완성되고 성취되도록 그분의 뜻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—엡 1:5, 9, 계 4:11.
 3. 우리가 우리 안에서,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이 수행되기를 원한다면, 우리는 반드시 보좌에 순복해야 한다.
 4.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보좌를 갖는다면,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, 우리와 함께,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.

III.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불타는 일곱 등불,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—계 1:4, 4:5.

- A.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고 있다는 사실은 일곱 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과 움직임과 연관된다는 것을 가리킨다.
- B. 세계정세는 불타는 일곱 영의 불길 아래 있다.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은 타오르는 일곱 등불의 다스림 아래 있다—계 1:4하, 4:5.
- C. 요한계시록 4장에 따르면, 불타는 일곱 등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행정의 움직임에 있다.
 1. 그리스도는 보좌 앞에 있는 불타는 일곱 영에 의해, 온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, 그분의 임무를 수행하시고 주권적으로 세계정세를 다스리시어, 하나님의 선민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적합한 환경을 만드신다—행 5:31, 참조 17:26-27, 요 17:2, 대하 16:9.
 2. 불타는 일곱 영의 불길은 교회를 심판하고 순수하게 하고 정련하여 금등대들을 산출한다.
 3. 일곱 등불의 태움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금등대들, 곧 교회들을 산출한다—계 1:12.

IV. 일곱 등불의 태움은 우리를 자극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게 한다—단 11:32.

- A. 극동과 미국에서 주님의 회복은 뿌리를 내렸고 자라고 있지만, 유럽에서는 그렇지 못하다.
- B. 유럽에 있는 회복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다. 따라서 주님의 현재 회복의 방향은 분명히 유럽을 향하고 있다.
- C. 주님의 최종 움직임을 위해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. “사랑스런 신성한 불길이지여, 오소서! 오셔서 태우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정련하여서 금등대들을 산출하소서.”